

다문화 가정 진로교육

자녀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녀의 일상적인 고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남과 다른 외모와 미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감정표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자녀 스스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남들과 달라’ 등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자아존중감과 자기정체성에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께서는 자녀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깊은 관심과 공감을 바탕으로 든든히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자녀는 자신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어야 할 가정에서조차 외면받았다는 생각에 더욱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받는 격려와 지원은 자신이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 위축감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갖게 하며 어떤 상처에도 쉽게 회복되는 면역성을 키울 것입니다. 자녀를 지키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관심을 갖고 매일 30분 이상 자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많은 시간을 의미 없이 함께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자녀에게 집중하면서 자녀가 느낀 감정, 생각을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화 습관은 자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 부모가 늘 든든한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무한한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둘째, 자녀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게 ‘오늘 다행한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도록 유도해주세요. 특히 자녀가 그날 경험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는 ‘엄마도 그렇게 반응했을 거야’, ‘충분히 너의 감정을 이해해’ 등처럼 공감과 지지의 말을 건네주세요. 다만 자녀가 경험한 부정적인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게 ‘오늘 다행한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긍정적이고 다행한 일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셋째, 자녀가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남을 돕는 봉사활동, 예체능활동, 일터 견학 등 다양한 체험을 해봄으로써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또한 혼자 힘으로 숙제를 마쳤거나 친구에게 먼저 사과를 건네거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을 실천하는 등 소소한 일들을 해냈을 때 축하해주며, 자녀가 더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작은 성취감이 차곡차곡 쌓여 자신감이 큰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이중언어와 문화라는 특성이 자녀의 진로개발에 큰 장점임을 알려주고, 진학·직업 정보 및 성공 사례를 함께 탐색해주세요. 이중언어 능력과 이중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력은 졸업 후 자녀의 진로개발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다문화 특성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진학 및 취업 정보와 성공 사례 등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다문화 특례입학 정보나 지역사회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교육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꼭 챙겨 보세요. 부모가 아는 만큼 자녀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 자녀의 진로고민은 학교를 방문하여 진로상담을 신청해보세요. 2015년 진로교육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배려 학생들에 대한 학교진로상담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방문해 자녀의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깊은 관심, 공감, 지원은 자녀에게 꼭 필요하며, 부모가 아는 만큼 자녀의 미래도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 있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자녀를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진로솔루션'은 특정 직업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궁금증에 대해 진로·진학(학습)·직업전문가가 각 분야의 생생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월 1회 연재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커리어넷' > 진로상담 > 진로솔루션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Q1. 외국계 기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첫째, 100% 외국 자본으로 설립해 국내에서 법인 자격을 취득한 '현지 법인'으로 IBM, DuPont, P&G 등이 있습니다. 둘째,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파트너로 활용한 '합작사'로 유한킴벌리, 한국안센 등이 있습니다. 셋째, 상호나 기능은 외국 법인과 유사하지만 외국 기업의 위탁을 받고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회사를 '지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취하는 기업으로는 Cathay Pacific Airlines, Deutsche Bank AG 등이 있습니다. 넷째, 직접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라 본사와의 연락 및 국내 파트너사와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다섯째, 외국 기업의 업무를 국내 기업이 계약에 의해 위탁받아 그 기업의 한국 내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점' 형태가 있습니다.

Q2.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공채 및 헤드헌팅을 통한 경력직 채용이 있습니다. 공채는 일반 회사처럼 서류 전형 등을 통해 1차 합격자를 선발한 후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며, 경력직은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에 있는 인재를 헤드헌팅을 통해 채용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특히 면접은 일반적인 부분과 더불어 그 사람의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Q3. 외국계 기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국내 기업에 비해 조직 분위기가 수평적이며, 주어진 휴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출퇴근과 복장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상사나 동료의 야근을 하더라도 정시 퇴근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직급과 상관없이 맡은 프로젝트를 잘 해내면 성과를 인정받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4.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세계 각국의 동료, 상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현지인처럼 유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이며, 다만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면 됩니다.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 성적은 한국 기업에 지원할 때와 비슷하나, 서류 통과 후엔 회사에서 자체 영어 시험 또는 면접을 보므로 실전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용어 공부는 필수입니다.



#외국계기업이 더 편하다던데 #자신감 부족

대기업에 다니는 언니가 외국계 기업이 근무 조건이 좋으며 이직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관심이 가는데, 외국어도 못 하고 내향적이라 외국계 기업이 잘 맞을지 확신이 안 섭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기효능감에 있어요.”

진로 전문가

한국의 기업 문화가 싫어서 외국계 기업으로 간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어느 조직 문화에나 적응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입니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못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성공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경험을 통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역량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계발하는 것!”

진학 전문가

미래 사회의 직업인이 되려면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해가며, 진취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역량은 끊임없이 계발하는 것이지만 타고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세요. 현재의 능력으로 당장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에 진학하고 실력을 연마해서 5-6년 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점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위험!”

직업 전문가

근무 환경만 보고 직업을 선택한다면 아무리 외국계 기업이라 해도 언젠가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좌절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야근이 없는 것은 아니며, 업무에 따라 야근과 출장이 더 잦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회사는 개인의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적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의 장점만 보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